



을彫刻한 一石을 놓  
고 그위 八瓣의 伏  
蓮臺石을 놓았는데  
上面에는 大小 여러  
層의 괴임을 刻出하  
고 그위 中臺石을 받  
고 있다. 竿柱는 八  
角인데 모두 隅柱가  
表現되어 있고 各面  
에는 蓮花上의 如來  
像과 菩薩像이 陽刻

되었다. 上臺石은 下面에 一段의 角形받침이 있으며 仰蓮도 瓣內를 花  
文으로 彫飾하였다. 光背는 寺刹에서 法堂內의 佛像 二軀中 어느 편에  
附着되었던 것인지를 判別할 수 없어 現在 兩軀中間에 걸쳐 놓고 있  
는데 이것은 筆者가 調査한 바 그 手法이나 實測值로 보아 如來像의 光  
背로 確證할 수 있었다. 早速히 本然대로 附着시켰으면 좋겠다. 光背  
는 舟形으로서 頭身光을 表現했는데 周緣에는 雄麗한 火焰文이 있으  
며 頭光周邊에는 八瓣의 單蓮(瓣內)에 彫飾이 있는데 돌려 있고 外輪  
과의 間地에는 寶相華文이 彫刻되어 있다. 頭光에서 二條線을 내려 身  
光을 區別했는데 그곳에도 寶相華文으로 彫飾했다. 坐像의 端雅함과  
流麗한 衣文 豐滿한 蓮瓣等 各部 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羅代의 優作으  
로 推定된다. 實測值는 (cm) 像高九三·五 肩幅四六 頭高三二 胸幅三二·五  
膝高一八·五 幅七四 光背가 附着되었던 柅穴徑三·八 深六·二 下部에  
서 四七·五 上臺石 徑九一 厚二〇 中臺石 一邊長二一·八 高二四·三 下  
臺石(下) 一邊長四三·五 高三 眼象 高一 幅三二 下臺石(上) 一邊長三  
八 厚二·五 光背高一五〇 上幅八五 下幅七三·五 廣幅一〇八 厚二二·五  
三、石造毘盧舍那佛

臺座만을 具存했으나 坐像의 後面에 光背附着의 柅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光背는 缺失된 것이다. 螺髮의 頭頂에는 넓직한 肉髻가 있고 兩

眉間에는 白毫孔이 있으며 목에는 三道가 있다. 相好는 豐滿한데 鼻  
樑과 口唇等에 若干의 磨損이 있고 右便耳部가 缺損되어 遺憾스럽다.  
한편 圓滿한 相好에 鼻部와 口唇이 바르게 彫刻되어 異例의 이라 할 것  
이다. 法衣는 通肩하였고 衣文은 兩腕을 걸쳐 流麗하게 흘러 무릎을  
덮고 있으며 背後에는 아무런 彫刻이 없다. 臺座는 方形으로 上、中、  
下臺로 이루어졌는데 上臺石은 下面에 一段의 角形과 一段의 물덩이  
로 받침을 삼고 있으며 四面 三瓣씩의 仰蓮은 單瓣으로, 內部에 花紋  
의 彫飾이 있다. 竿柱의 各面에는 큼직한 眼象이 一區씩 있는데 下部內  
에 귀꽃模樣의 三山形花文이 있다. 下臺石은 前面이 破損되었으며 側  
面에 眼象 二區가 配置되었는데 여기에도 三山形花文이 있다. 上面은  
平扁한 扁 괴임 등의 刻出은 全無하다. 相好나 衣文의 手法 臺座 蓮瓣  
等으로 보아 年代는 麗初로 推定되며 優作에 屬한다 할 것이다.  
實測值는……(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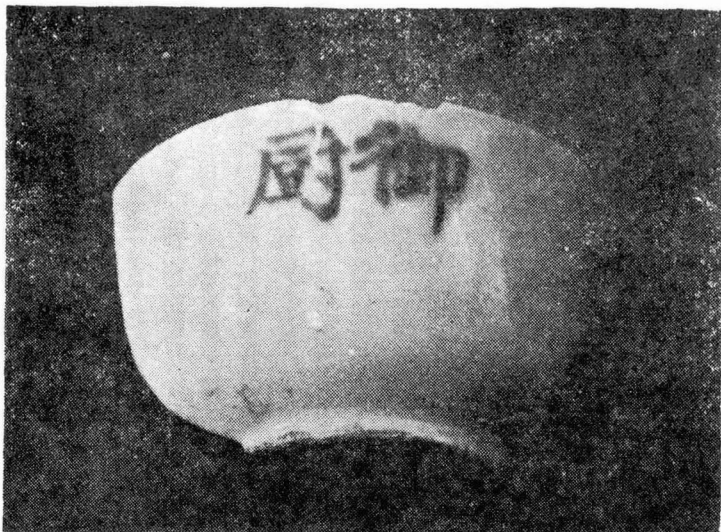
像高一 一 肩幅五 膝幅八九 頭高三三·五 胸幅三六 高三 上臺厚三四 前  
面長一〇 二 側面長九二 中臺高三七·二 前面長四八·五 側面長四五·一 下  
臺高二五·五 前面長九八·五 側面長八六·五

現在 境內에는 많은 礎石이 散在해 있는 바 前述한 石佛 兩軀에 關하  
여는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보이는데 이 때에는 現在의 建物들이 없  
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本調査에 있어 同行하여 많이 協助해  
준 同人 鄭明鎬氏와 現地에서 案内 등 많은 도움을 주신 醴泉郡 教育課  
長 金正植先生께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이다.

### 分院出土「御厨」銘白磁盃斷片

鄭 良 謨

今月初旬 廣州 牛川の 右邊 窯蹟을 調査하여 樊川에서 分院에 이르렀  
다.



二年前에 完全히 破壞되어 여기저기 窯의 破棄物과 磁器片들이 散亂되어 있는 分院里全體와 分院의 中心窯床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그곳 國民學校 뒤를 돌아 보고 다시 運動場으로 나와 近處에서 資料가 될만한 破片을 蒐集하던 中 表題의 破片을 採集하였기 여기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

에 蒐集 調査된 例로는 竇 밑에 「內局」, 「內」, 「上室」, 「安」, 「奉」, 「山」, 「典」, 「履洞舍」, 「本」, 「大字」 등이 있고 그릇 內底에는 「祭字와 거의 分院末에 와서 「壽」字를 넣은 例를 볼 수 있으며 分院이 民窯로 된 以後에는 內底 又是 竇 밑에 여러가지의 文字가 들어간 例를 볼 수 있다. 이렇게 文字를 넣은 器皿은 大개 祭器等에 많으며 항아리의 側面에 「翰林」이라고 적어 넣은 外에는 거의 全部 그릇 內底나 竇 밑에 적어 놓고 있다.

表題 器皿에서 寫眞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그릇의 外部口緣 가까이에 크게 「御厨」라는 두 字를 靑華로 橫으로 써 넣었다. 從前에 調査된 例로 보아도 器皿에 써 넣은 文字는 바로 그 器皿이 使用되는 官司나 舍名을 表

示한 것과 같이 이 御厨라는 새로운 銘文例도 바로 使用되는 곳을 가리킨 것이라 생각된다. 御厨는 바로 水刺間으로 直接 王의 御膳을 만드는 곳이며 이 그릇은 또한 水刺間에서 專用키 爲하여 만들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端宗實錄 卷四 端宗 即位年 十二月 甲寅條에

「許詔啓曰 御厨必嚴禁防律文 外人擅入則具罪抵死 况外人陰備熟食私進 乎乞自今外人毋得私進熟食(中略) 從之 遂于進膳門日 大小人 毋得私進膳(下略)」

이라 하여 御厨에 擅入하면 그 罪가 얼마나 重하게 다스려졌으며 王의 進膳에 關하여 얼마나 세심하고 嚴하게 다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憲宗六年 九月丁亥에 刑曹判書 權敦仁과 參判 李穆潤, 參議 尹滋畊 등이 聯疏한 것을 보면

「(上略) 罪人鄭日孫(中略) 己身絶島爲奴矣 臣等謹按大明律 凡盜神祇御用祭器帷帳等物者皆斬 大典通編 御厨物偷竊者 以盜大祀神御物論(中略) 渠既以偷竊自服 則清犯己具斷案而特教傳生 臣等固知聖意之生於天地大德而王府金石斷不當撓枉 伏乞更加三思 施以當施之律焉(下略)」

이라 하여 御厨物을 偷竊한 者의 罪를 아주 重하게 다스리려함을 볼 수 있다. 이 外에도 實錄을 通하여 우리는 御厨의 諸事가 嚴重하게取扱되는 例를 볼 수 있으며 이제 이 그릇을 좀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水刺間에서 使用하던 磁器에 對하여 미루어 보기로 한다. 極히 精選된 白胎土에 分院期에 이르러 甲燻의 上品磁器에서 볼 수 있는 淡帶靑의 釉藥이 施釉되었는데 그 質感이 훨씬 곱고 부드러우며 다른 上品 甲燻에서 볼 수 있는 氣胞가 거의 없어서 더 安定感을 주는 것 같다. 그러나 그릇은 아주 두꺼운 便이며 竇 밑은 깊게 파고 다른 一般分院 生産品보다는 훨씬 고운 모래를 使用했으나 모래받침대고 靑華의 發色이 그리 곱지 못하고 竇에서 위로 비스듬히 올라가 口緣에서 그대로 정리된 線같은 것을 分院時의 特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

대략 一九世紀頃에 만들어졌으리라 생각되는 이 그릇은 分院이 十九世紀에 들어와서 燻造한 磁器中의 上品磁器의 好例라 볼 수 있다. 아울러 備齊叢話 卷之十에 「世宗朝御器專用白磁」라 한 것이나 光海君日記卷

一百一十八年四月 壬戌條에 「至於司甕院沙器大殿則用白磁器、東舍則用青磁器」라 하여 御用에 白磁器를 使用했음을 알 수 있겠거니와 이제 御厨銘白磁器로 이루어진 一九世紀 御用白磁의 質의 一斑과 이때까지도 御用에 白磁를 계속하여 遵用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높이 七·一cm 口徑(復元) 一一·九cm

### 慶州在銘石槽二座

鄭 明 鎬

一九六二年秋 大邱日報文化面に 月城郡守 官舍内の 石物이 數點 紹介된 後日 이 뜻을 調査하던 中 注目된 大小二個의 在銘石槽가 있어 이를 紹介코자 한다.

이 石槽中 大型의 것은 前面에 『天光雲影』이라는 刻字가 있으며 槽의 輪廻部(진두리) 上面 兩長邊前方에는 『二樂堂前雙石盆 何年玉女洗頭盆 洗頭人去蓮花發 空有餘香滿舊盆 戊子流頭 蘇湖 李教方』의 橫書와 越便에는 縱書로 『此乃羅代與輪舊物寺廢拋在荊棘中者幾千餘年載 崇禎戊寅冬 運入植蓮以爲賞玩之具顯晦有數□失(夫) 廣陵後人晚悔識』의 刻字가 있는 데 그 中 『羅代與輪舊物 寺廢拋……崇禎戊寅冬運……廣陵後人晚悔……』와 『二樂堂雙石盆 戊子流頭蘇湖李教方』라는 文句가 注目된다. 이 文中에 있는 바와같이 이 水槽는 廢虛된 興輪寺址에서 移送된 것이다. 同石槽에 關하여는 東京通志 佛寺條에 『在府南三里 眞興王甲子創建有石槽 仁祖時 府尹李必榮移置琴鶴軒植白蓮 刻而識之』云云 梅月堂詩四遊錄……遊金鰲錄에 註與輪寺址(盡化閭閻惟石槽鑿獨存)……石槽遇因鑿辭炎……云云 등에서 볼 수 있는 바로서 石槽의 存在와 移置年代를 大略 알 수 있다. 그러나 좀더 仔細히 移置年代와 移置된 現郡守 官舍에 對하여 考察해 보면 石槽記銘에서 「崇禎戊寅冬運……晚悔」와 東京通志의 「仁祖時府尹李必榮 移置琴鶴軒」에서 이곳에 李必榮은 東京通志 歷代守官條에 「府尹李必

榮 丁丑八月庚辰七月初四日來十一日瓜」라고 있고 朝鮮人名辭典에 「李必榮 字 而實 晚悔라 稱하며 廣州人으로 宣祖丁酉에 文科에 登하고 官 參贊에 이르러 漢南君에 封하였다」고 함으로써 石槽의 廣陵後人晚悔와 同一人으로 推定되며 더욱이 晚悔 李必榮이 慶州府尹으로 赴任된 翌年이 바로 戊寅年임을 보아 더욱 確實視되고 있는 바이다. 또한 二樂堂과 通志의 琴鶴軒은 同志宮殿條에 依하면 前者는 在衙門內、後者는 在府衙東으로 되어 있음을 보아 二樂堂은 現郡守官舍 後庭에 있는 韓式瓦家인 듯 하며 後者는 現稅務署로 推定된다. 이로써 晚悔가 赴任翌年 廢虛興輪寺에 放置된 것을 二樂堂前庭에 옮겨 놓고 이곳에 蓮花中 白蓮을 심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戊子流頭에 蘇湖 李教方에 依하여 詩 한 수가 남아 있으니 이 戊子年은 晚悔가 이를 옮긴지 十餘年이 經過된 것이다. 李教方에 對하여서는 上記 諸書에서는 發見치 못하였으나 石佛寺(石窟庵)前室 腰石에 李元八 李教直 李教方 李教大 等の 陰刻人名中에 있어 前記 李教方과 同名인이 아닐까 推定된다. 이 當時에도 往往 부질없는 尋訪客에 依하여 刻名行爲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他 一의 石槽는 小形으로서 石質自體가 前者보다 低質의 花崗岩으로 前面에 琴鶴軒石盆』이라는 題名이 陰刻되어 있다. 이 역시 前述한 大形石槽銘에 「二樂堂前雙石盆」云云과 東京通志 「府尹李必榮移置琴鶴軒……」云云과 關係가 있는 듯하다.

大形과 小形의 二槽中 어느 것이 興輪寺에서 移置되었는지 或은 二個 다 옮겨온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 遺憾스럽다. 그러나 上記 資料로써는 二個라는 것이 없으나 晚悔가 在留時에 二個의 石槽가 있었음을 確實하다. 이에 對하여는 後日에 調査로서 밝혀야 할 것이다. 現在 이 兩水槽中 大形은 一九六三年 봄에 慶州博物館으로 小形은 一九六四年 五月 下旬에 石窟庵前 飲料水場으로 各各 移置되었다.

以外에 興輪寺의 遺物이라고 말하는 것은 現在 慶州博物館入口 庭園에 陳列한 拜禮石과 石燈의 中臺와 火舍石을 失한 石燈臺石과 慶州校里 崔浚氏庭의 十二支刻石燈 等이 있다.

實測值